

HYUNDAI E&C TODAY

Vol 409
2021/12/24 FRI

발행인 윤영준
편집인 한성호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주소 서울시 중로구 을지로 75 현대빌딩
신고번호 종로 다0049

2021 현대건설 뉴스 9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요즘이다. 우리는 남다른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2021년을 뜨겁게 살았다. 올해도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어를 빼놓고는 현대건설을 설명할 수 없다.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수주 새 역사... 사상 최대 실적 '5조원' 바라본다

지난해 최대 기록 1년 만에 넘어서... 총 20개 사업지에서 4조8251억원 달성

현대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4조8251억원을 수주하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은 물론 2년 연속 '4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건설은 12월 18일부터 대치 선경3차 가로주택, 산본 개나리 주공13단지 리모델링, 안산 고잔연립3 재건축, 수원 영동 신명동보 리모델링 등을 연이어 따내며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는 창사 이래 최대였던 지난해 수주 실적(4조7383억원)을 뛰어넘는 대기록이다. 현대건설의 이와 같은 성과는 연초부터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용산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 대구 신암10구역 주택재건축, 부산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 서초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 등 총 20개 사업지에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쌓아온 결과다. 특히 올해 현대건설은 도시정비사업부 내 사업추진 전담 조직을 구성해 수주영업과 사업추진을 분리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사업추진 전담 조직이 수주 이후의 리스크 관리를 맡으면서 영업 조직이 신규 수주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이 밖에 현대건설은 연말까지 흑석9구역 재개발, 잠원 갤럭시1차 리모델링 사업 등의 입찰도 남겨두고 있어 향후 '수주 5조원 돌파'는 물론, '업계 최초 도시정비사업 수주 3년 연속 1위'까지도 기대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수개월 전부터 사업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주에 뛰어들어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브랜드 인지도와 첨단 기술력, 조함원 니즈를 충족하는 사업 제안 등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 amount of orders for domestic urban renewal projects received by Hyundai E&C this year stood at 4.8251 trillion won, which led Korea's primary builder to enter the "four-trillion-won club" for two consecutive years as the amount of orders received during the period of 2021 reached all-time high. A winning streak started on December 18 as the builder took deals to redevelop or refurbish Seongyeong 3 Roadside Houses in Daechi, Gaenari Jugong Complex 13 in Sanbon, Gojan Row Houses 3 in Ansan, and Shinmyeongdongbo Apartment in Suwon. This year's figure is higher than 4.7383 trillion won in the previous year,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company's efforts to build up a variety of portfolios in 20 project sites. Notably, Hyundai E&C strengthened its capability to conduct urban renewal projects by establishing a dedicated team for conducting projects in the urban renewal department and separating project implementation from order winning. The team becomes responsible for project risk management, enabling the marketing team to focus only on achieving new orders.

UNLIMITED HYUNDAI E&C

현대건설은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현대정신'으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사보신문>은 구체적 실적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건설 리더'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건설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TOPIC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대한민국의 맥을 잇다

TREND

차트로 보는
2021 트렌드 결산

CULTURE

연말 홈파티의 분위기를
UP시켜줄 케이크



송파 마천4구역 재개발

서초 잠원동아 리모델링

Our company receives FEED order for petrochemical complex in Indonesia

Participating in the first stage of planning and development of global petrochemical complex

Our company will participate in Front-End Engineering Design (FEED) process for the second petrochemical complex, named CAP 2-PKG A, of Chandra Asri, the Indonesia's private petrochemical producer.

FEED is a key stage of reviewing the feasibility of basic engineering design for an EPC order to establish a detailed construction plan. For the FEED process, our company will cooperate with Toyo Engineering. This order winning is all the more meaningful in that our company has been recognized for our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know-how in the global market by taking part in the first stage of planning and development of the world-class petrochemical complex.

The CAP 2 petrochemical complex will be located in the Cilegon region, about 116 kilometers away from Indonesia's capital Jakarta, and produce naphtha crackers, butadiene, polyethylene, polypropylene and benzene. Chandra Asri, the country's largest petrochemical company, will select an EPC firm after the completion of the

basic design.

"In spite of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due to COVID-19, we received the basic design (FEED) order in recognition of our technological prowess and plant construction know-how," an official of our company said. "We will do our utmost to use this opportunity to win EPC orders to come in the future."

Meanwhile, our company successfully completed a total of 25 projects, valued at 3.1 billion dollars, such as the Sarulla geothermal power plant, after we tapped into the Indonesian



market in 1973 to build the Jagorawi Toll Road. Currently, our company is working on conducting two projects in the country.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FEED 수주 ... 글로벌 시장에서 ‘플랜트 기획·개발력’ 인정받다

세계적 규모 석유화학단지의 기획·개발 첫 단계 참여 ... 연계 EPC 입찰에서 유리한 입지 선점

우리 회사가 인도네시아의 민간 석유화학회사인 찬드라 아스리(Chandra Asri)가 추진하는 두 번째 석유화학단지(CAP 2-PKG A)의 FEED(Front-End Engineering Design)에 참여한다.

FEED는 EPC(설계·조달·시공) 발주를 위한 기본 설계의 타당성 검토

단계로, 세부 건설 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과정이다. 우리 회사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업체인 토요 엔지니어링(Toyo Engineering)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수주는 세계적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의 기획·개발 첫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글로벌 시장

에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116km가량 떨어진 찰레곤에 들어서는 석유화학단지(CAP2)에서는 나프타 크래커, 부타디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벤젠 등이 생산될 예정이다. 발주처인 찬드라 아스리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석유화학기업으

로, 기본설계를 완성한 후 EPC 업체 선정에 들어갈 것을 발표했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의 플랜트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기본설계(FEED)를 따내는 쾌거를 거뒀다"며 "이를 발판으로 향후 발주될 EPC 사업도 연계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회사는 1973년 자고라위 유료도로 공사로 인도네시아에 첫발을 내디딘 후 사랄라 지열발전소, 수카르노 하타 공항 제3터미널 등 총 25개 공사(총 31억 달러 규모)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다.

Donation of light safety helmets for children

Our company is conducting a wide rang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at the end of this year with an aim to prevent safety-related accidents for happening to children and provide support for underprivileged people.

Our company donated about 2,800 light safety helmets for children to several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Busan. This is a follow-up project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CSR activities signed in



last April, which was conducted jointly with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and Plan Korea.

어린이용 ‘재난안전 경안전모’ 전달 ... ‘사랑나눔기금’ 2억6000여만원 기탁

우리 회사가 연말을 맞이해 어린이 재난 안전 예방,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회사는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초등 학생을 위한 ‘재난안전 경안전모’ 2800여 개를 부산 지역의 모전초등학교, 장안초등학교, 기장초등학교 등에 전달했다. 건설산업사회 공헌재단-플랜코리아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지난 4월에 맺은 사업공헌 MOU의 후속 사업이다.

우리 회사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모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착용법, 지진속 학습,

모의 대피 훈련 등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 전달된 경안전모는 4중 구조로 제작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RFID(무선인식) 태그를 부착해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한다.

이 밖에 우리 회사는 현대종합설계와 공동으로 12월 20일 광화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임직원들의 급여 끝전으로 모은 ‘사랑나눔기금’ 2억6000여만원을 기탁했다.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성금은 우리 회사의 국내외 현장 인건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Development of remote site management platform using smart devices

Our company has developed a platform for remote site management for the first time in the domestic market, managing construction sites in real time with the help of unmanned drones and smart glasses.

Previously, access to different systems was required to integrate construction data, which made it difficult to manage construction sites in real time. However, the use of this new platform linked to drones and smart glasses enables users to manage construction sites in a three-dimensional way through utilizing video clips and three-dimensional data. The users can identify workers' safety in real time and take prompt ac-



tions in case of accidents by connecting 360-degree cameras and CCTV footage with various smart devices. The new platform has been successfully test-operated for one of our urban development projects conducted in Gyeongju.

스마트기기 활용한 ‘원격현장관리플랫폼’ 개발

우리 회사가 국내 최초로 무인드론과 스마트글래스를 연계해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격현장관리플랫폼’을 개발했다.

당초 현장에서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 회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하나의 시스템에 연계한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영상과 3D 데

이터를 기반으로 입체적인 현장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360도 카메라, CCTV 영상 등을 다양한 스마트기기와 연결하면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원격현장관리플랫폼을 ‘경주 보문전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에 성공적으로 시범 적용했다. 향후 여러 현장에 적용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yundai E&C joins hands with KIST for smart construction environment

Promotion of eco-friendly energy technologies through technological cooperation

Our company sets out to create a smart construction environment and promote eco-friendly energy technologies in cooperation with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Our company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n R&D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Hyundai E&C's head office on December 7, with the attendance of Hyundai E&C CEO Yoon Young-joon, KIST's President Yoon Seok-jin

and officials of the two organizations.

The conclusion of the MOU is expected to enable our company and the research institute to accelerate joint efforts in the areas such as autom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establishment of a digital twin environment, robotic technologies for automation of construction and future residential services, hydrogen energy-based technologies, and eco-friendly technologies.

The "water treatment technology using composite catalysts to reduce nitrogen" submitted by KIST was given the excellence award at the Hyundai E&C Technology Awards 2021. KIST will be in charge of the improvement and modularization of composite catalyst materials, while our company will be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water treatment processes using composite catalysts and on-the-spot inspections.



현대건설, KIST와 손잡고 ‘공동 연구’ 본격 추진한다

기술협력 통해 스마트 건설 환경 구축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 연구에 앞장설 계획

우리 회사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손잡고 스마트 건설 환경 구축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 활성화에 나선다.

우리 회사는 12월 7일 서울 종로구 공동 본사에서 운영진 사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

기술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건설관리 자동화 및 Digital Twin 환경 구축 ▶건설 시공 및 미래주거 서비스 자동화 로봇 기술 ▶수소에너지 기반 기술 ▶친환경 기반 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1 현대건설 기술공모전’에서 ‘복

합촉매를 이용한 질소저감 수처리 기술’로 최우수상을 받은 KIST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회사와 공동연구에 나선다. KIST가 복합촉매 소재 개발 및 모듈화를, 우리 회사가 복합촉매를 활용한 처리 공정 개발 및 현장 적용 검증을 맡았다.

‘복합촉매를 이용한 고농도 질소저

감 수처리 기술’은 기존 생물학적 질소 제거 공정의 리스크를 보완하고, 점차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정의 단순화로 소요 부지, 운영비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우리 회사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2025년까지 원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고농도 질소 함유 폐수 처리에

도미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우수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소에너지, 친환경 기반 기술 등 첨단 기술 융·복합에 힘써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

OSC 신공법, 건설신기술 지정 쾌거

우리 회사가 삼표퍼넌체㈜와 공동으로 ‘단부 보강형 PC 더블월(Precast Double Wall) 복합화 공법’(이하 PC 더블월 공법)을 개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제920호)로 지정받았다.

PC 더블월 공법은 현장 생산 방식에서 공장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OSC(Off Site Construction) 기술의 일환이다. 서로 연결된 두 개의 PC(Precast) 벽판을 공장에서 만든 후 현장으로 운반해 하나의 벽체로 제작할 수 있다. 콘크리트 벽체의 내구성 강화와 지진 저항 성능 향상뿐 아니라 누수에도 강하다. 또한 기존 공법 대비 약 30%의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공정 단순화로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진보성·현장 적용성이 뛰어난 기술에 주어지는 건설신기술은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PC 더블월 공법은 한국건축구조 기술사회의 기술인증을 통해 구조적 성능을 검증받은 데 이어 4건의 관련 특허 등록으로 기술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H 퍼블릭 아트 어워드 2021’ 시상식 개최

우리 회사가 12월 7일 힐스테이트 미술작품 공모전 ‘H 퍼블릭 아트 어워드 2021’의 시상식을 가졌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열린 ‘H 퍼블릭 아트 어워드 2021’은 역량 있는 국내 미술가를 발굴하고, 공동주최 내 공공미술 설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리바트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작품 접수(9월), 1차 내부 심사(10월) 등을 거쳐 12개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다. 우리 회사는 전시 마지막 날 국민대 최태만 교수, 충남대 박관철 교수 등 미



술계 저명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선정된 작품은 ▶김경일 작가의 ‘Assimilation-Bird’ ▶김재호 작가의 ‘뽕주는 도시’ 등 4개 작품으로, 건축심의를 거쳐 각 힘대 최태만 교수, 충남대 박관철 교수 등 미

원스톱 ‘디에이치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론칭

우리 회사가 디에이치 입주민을 대상으로 고밀도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원스톱 ‘디에이치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론칭했다. ‘디에이치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은 코로나 19 이후 변화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춰 대면 위주의 주거 서비스에서 한걸음 나아가 비대면 주거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 회사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 입주부터 입주 후 생활 전반에 밀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민들은 ▶건강, 문화, 교육, 자산관리 ▶생활지원센터 공지사항, 전자투표 ▶집 안 청소,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세대 내 홈 기기 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택배 조회, 보이 스몐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유수의 브랜드들과 제휴해 디에이치 입주민만의 특별한 혜택도 제공된다. 입주민들은 ▶주거/생활 ▶건강관리 ▶문화/여흥 등 9개 카테고리별의 17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디에이치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은 지난 11월 입주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를 시작으로 추후 입주 예정인 디에이치 단지에 확대·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2021년 CS 우수 고객 점점 인원 포상 수여식

우리 회사 구매사업부가 고객들과 점점에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CS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직원 및 협력사 관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CS센터 H-테크니션(2인), 고객센터 상담사(3인), H-윌컴라운지(임주관리업체) 대표자(1인) 등이 포상을 받았다.

한편 2007년 오픈한 현대건설 고객센터는 원스톱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일관되고 신속한 고객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1년 KS-CQI 콜센터품질지수’ 조사에서 2년 연속 아파트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표준협회와 주관하는 KS-CQI 콜센터품질지수는 콜센터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는 모델로, 우리 회사는 평가지표 중 ‘신뢰성’ ▶친절성 ▶적극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건설 뉴스 9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요즘이다. 우리는 남다른 도전정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2021년을 뜨겁게 살았다. 그 결과 올해도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어를 빼놓고는 우리 회사를 설명할 수 없다. 글·정리=박연희

국내 1등 건설사 도시정비사업 '5조원' 목전

팬데믹 등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우리 회사는 신규 수주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은 새 역사를 썼다. 그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 기록적이다. 우리 회사는 12월 23일 수원 신명동보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며 업계 1위(12월 24일 기준)를 달리고 있다. 연내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대치 비취타운 가로주택, 잠원 갤럭시차이퍼트 리모델링 사업 등 약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주 예상 사업들이 남아 있는 만큼 '수주 5조원 돌파'와 함께 '업계 최초 도시정비사업 수주 3년 연속 1위'까지도 기대되고 있다.



수원 신명동보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조감도

세계 최고·최장경간 프로젝트 아인 두바이·고덕대교

수많은 기록을 갱신하며 세계 건설사에 한 획을 그은 역작들도 탄생했다. 두바이의 핫 플레이스 블루워터스에 우뚝 솟은 '아인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거대한 관람차다. 주변을 압도하는 웅장함은 물론 두바이의 유명 랜드마크와 멋진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우리 회사의 주도 아래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11개국의 협력으로 탄생한 아인 두바이는 63빌딩과 맞먹는 250m 높이로, 런던아이(높이 135m)보다도 두 배 가량 크다. 아인 두바이는 '현대건설이기에 가능한 프로젝트'라는 자부심과 찬사가 따르는 현장이다. 세계 최고·최대의 건축물을 건설해 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난도 현장임에도 무사고 925만3558시간을 기록하며 '전 공정 무재해'로 준공했다. 한강에서 세워지는 33번째 다리이자 세계 최장경간 콘크리트 사장교도 우리 회사가 건설하고 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간) 14공구'의 '고덕대교'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총연장 1km(본선 전체 2.04km)의 콘크리트 사장교다. 세종에서 포천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구간으로, 세계에서 주탑 간 거리가 가장 긴(540m) 콘크리트 사장교로 건설 중이다.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고덕대교에는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은 물론 현장과 본사, 우리 회사와 각계 연구진들의 다양한 협업 결과물이 적용됐다. 그 결과 고덕대교는 100m/s 이상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내풍 안전성과 재현주기 4800년의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으로 현재까지 '중도재해 제로'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

글로벌 톱 티어! 세계적인 수준의 지속가능&디자인 경영

올해에도 '글로벌 톱 건설사'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소식이 국내외에서 전해졌다. 먼저 우리 회사의 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이 글로벌 수준임을 인정받은 바였다. '2021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서 12년 연속 DJSI World에 편입되고, '건설-엔지니어링 부문' 총 9회 세계 1위(Industry Leader)에 선정된 것. 이는 전세계 건설사 중 유일하다.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I)이 76개 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ESG 통합 평가에서 4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 또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CDP Korea 명예의 전당'에 국내 건설사 최초로 3년 연속 입성하는 쾌거도 이뤘다. 한편 우리 회사는 12월 23일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 상반기 탄소 중립 선언을 목표로 '탄소중립 IT'를 발표했다. 고객 편의를 위한 기술 개발과 예술적 감성을 모두 담은 노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0월과 5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손꼽히는 'IDEA 2021(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와 'iF DESIGN AWARD 2021'에서 미디어 형태의 문주(門柱) '더 게이트', 탄젠트(The Gate, Tangent)와 다이아지 미세먼지 저감 상품인 '클린존(The Clean Zone)'으로 각각 본상을 수상했다. 자연을 담은 공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사례도 있다. 우리 회사는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로 조경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어워드 '2021 IFLA Award'에서 아태지역 공동주택(Residential) 부문 '우수상(Awards of Excellence)'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건축 전문 웹진 아키텍처(Architizer)가 주최한 에이플러스 프로젝트 어워드(A+ Product Award)에도 다이아지 지이 게이트가 '파이널리스트(Finalist)'로 선정되며 디자인 경쟁력을 당당히 입증했다.



아인 두바이 전경

압도적인 '스마트 건설' 행보 UAM·BIM 등 디지털 기술 확대 총력

건설 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스마트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해였다. 우리 회사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건설 및 신사업 분야의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 건설 환경 구축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 연구에 앞장서고자 12월 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1월에는 우리 회사, 현대자동차, 인천국제공항공사, KT, 대한항공 등 5개사와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성공적 실현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를 맺었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 우리 회사는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Vertiport) 및 제반시설 설계·시공 기술 개발과 육상교통과 연계한 모빌리티 허브 콘셉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2021년은 스마트 건설기술에 진심이던 우리 회사의 결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해다. 우리 회사는 최근 국내 최대 BIM 공모전 'BIM Award 2021' 일반 부문과 건설기술 공모전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로보틱스 부문에서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BIM Award 2021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현장에 적용된 '스마트건설, 현대건설 BESPOKE 전략'으로 대상,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산업 자동화 트렌드에 발맞춰 현장의 정보들을 디지털화하고 로봇으로 대체하는 '최첨단 순찰로봇과 작업용 로봇 기술'을 소개해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스마트건설 환경 구축을 통한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건설 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스마트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해였다.

참으로 현대건설다웠던 2021년!
Best & First
of HYUNDAI E&C

신시장·신사업 첫 진출 페루 친체로 신공항·소형모토원전 독점권 확보

'도털 솔루션 크리에이터'로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시장·신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 회사는 올 3월 1억4380만 달러 규모(당사 55%)의 '친체로 신국제공항 부지정지 공사'를 수주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남미 페루에 진출했다. 11월에는 4억2800만 달러 규모(당사 35%)의 '친체로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본공사'를 수주하며 현대건설을 페루에 선명히 각인시켰다. 이로써 고대 양자극대 유적인 마추픽추의 관문이 될 신공항을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탄생시킨다.

올해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사업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해였다. 지난 11월 원자력 사업 분야 선도 기업인 홀텍 인터내셔널(Holtec International)사와 협약을 맺고 소형모토원전(SMR)의 글로벌 시장 독점 협력권을 확보한 것. 홀텍의 SMR-160 모델은 160MW급 경수로형 소형 모듈 원자로로, 사막·극지 등 지역 및 환경적 제한 없이 배치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과거 수주·시공 중심 사업 영역에서 벗어나 솔루션 파트너(Expanded EPC)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올 어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역량을 드러낸 해이기도 하다. 우리 회사는 인도네시아의 민간 석유화학회사인 찬드라 아스리(Chandra Asri)가 추진하는 두 번째 석유화학단지(CAP 2-PKG A)의 FEED(Front-End Engineering Design)에 참여한다. FEED는 EPC(설계·조달·시공) 발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타당성 검토 단계로, 세부 건설 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과정이다. 이번 수주는 세계적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의 기획·개발 첫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페루 친체로 신국제공항 조감도

국내 최초 기술력 건설신기술·충진소음차단 1등급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의 기반을 탄탄히 다진 한 해였다. 우리 회사는 최근 공장 제작형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제20호)로 지정받았다. 삼포펜앤씨와 개발한 '단부 보강형 PC 더블월(Precast Double Wall) 복합화 공법'은 현장 생산 방식에서 공장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OSC(Off-Site Construction: 탈현장화) 기술이다. 서로 연결된 두 개의 PC 벽판을 연결해 하나의 벽체로 만드는 공법으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로부터 기술 인증 및 구조적 성능을 검증받았다.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국내 최초로 증간소를 차단 최고 수준의 1등급 성능 기술을 확보한 것. 지난 5월 바닥구조 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I'를 선보인 우리 회사는 10월 이 기술에 고성능 완충체에 특화된 운동층을 추가 적용해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를 제어했다. 이 바닥구조 시스템은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중앙충격을 차단 1등급 39dB(데시벨) 성능을 공식 검증받았다. 이 밖에 우리 회사는 최근 국내 최초로 무인드론과 스마트글래스를 연계해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격현장관리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은 영상과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체적 현장 관리가 가능하다.

업계 최초 안전·품질 시스템 Q-Pocket·통합스마트 자동계측 모니터링 등

우리 회사는 올 한 해 안전계측 프로젝트를 수행해 최고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안전·품질 시스템을 개발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품질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통합 검측시스템 'Q-Pocket'은 우리 회사가 동종 업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Q-Pocket은 현장의 검측계획 수립, 이후의 하자 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하자 관리 부분은 특허로 등록돼 있다. 우리 회사는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장 품질관리 업무를 100% 시스템화할 계획이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또한 건설사 최초로 개발했다. '통합 스마트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현장의 가설구조물 및 지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괄관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장비협착방지시스템'을 전 현장에 도입해 건설 현장 내 중장비의 사고지대를 없앴다. 또한 2018년 건설사 최초로 자체 개발한 안전관리플랫폼 HiOS(하이오스)에 최근 안전 이슈로 주목받는 ▶'간염' ▶'침수' ▶'화재' 사고 대응 등의 기능을 추가하며, 디지털 기술을 통한 안전경영을 더욱 견고히 했다.

통 큰 상생 협력 동반성장지수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힘든 시기인 만큼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가 소중했던 한 해였다. 업계 최초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협력사 채용 지원 프로그램'은 우수 인력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건설업계 최초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온라인 채용관을 개설, 전문 인재 육성부터 취업까지 직접 매칭에 나섰다. 협력사 전용 라운지 'H Together Lounge'를 오픈한 것 또한 국내 건설사 중 처음이다. 우리 회사는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협력사들에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보증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이행 및 선금금 보충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협력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업계 최대 규모인 1600억원 상당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 중이다. 우리 회사의 노력은 대·중 소기업 간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빛을 발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사와 상생한 결과물이다.

프로배구 여자부 사상 최초 기록! 개막 후 최대 연승&구단 최대 연승

올해 우리 회사 힐스테이트 배구단(이하 '현대건설 배구단')은 지는 법을 잊은 듯하다. 현대건설 배구단은 12월 3일 수원체육관 홈구장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KGC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했다. 이로써 프로배구 여자부 사상 처음으로 개막 후 최대 연승(12연승)을 기록했다. 이는 구단 최대 연승 기록이기도 하다. 12라운드 전 게임에서 승리하며 연승 행진에 이어가던 현대건설 배구단은 지난 7일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곧 승기를 다시 잡았다. 이번 시즌 현대건설 배구단은 그야말로 독주 체제다. 1패 후 다시 연승 기록을 쌓고 있다. 언론에서도 "2005년 V-리그 출범 이후 여자부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1위 팀은 없었다"고 보도한다. 팀워크 또한 역대 최고다. 주전-비주전 할 것 없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원팀'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양효진 역시 "7명이 아니라 19명 전원이 함께 경기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할 정도. 파죽지세로 현대건설 배구단이 이번 시즌 어떤 역사를 쓰게 될지 기대된다.





성명

사원번호

2021년 현대건설 개일 퀴즈

놀라운 수주 행진으로 2021년을 알차게 보낸 현대건설!
우리 회사가 걸어온 1년을 되짚어 볼 수 있는 퀴즈를 준비했다. 글=강은비

OX 퀴즈

1. 우리 회사는 12년 연속 다우존스 'DJSI World'로 편입됐다.
2. 힐스테이트 '5 Second 갤러리'는 아파트의 로비 공간에 예술을 접목해 오픈 갤러리와 같은 새로운 공간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3. 세종-포천 고속도로 14공구 현장은 주탑 간 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긴 540m 콘크리트 사장교다.
4. 페루 친체로 신공항 부지 공사는 우리 회사가 중남미 국가에 처음으로 진출한 프로젝트다.

주관식 ※QR코드 퀴즈!

1.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거대한 관람차로 런던 아이 2배 규모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관람차 이름은?
(초성힌트: 00DHO)
2. 건설업계 최초로 모바일과 웹을 이용해 실시간 현장 품질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통합 검측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초성힌트: KPOK)

주관식 정답은 다음 호에 알려드립니다!

객관식

1. 우리 회사의 2021년 첫 해의 수주는 이 국가에서 포문을 열었다. 1975년 주베일 산업항 공사를 시작으로 총 156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곳은 어디일까?
① 쿠웨이트 ② 사우디아라비아 ③ 아라크 ④ UAE
2. 우리 회사는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이 기술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아직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재해 위험도 예측 ② 공정 관리 ③ 공동주택 CS 분석 시스템 ④ 의사결정 체계
3. 우리나라 정보 자산을 지키는 요새이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는 국내 최초 제로 에너지 데이터센터 현장은?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② 네이버 세종 데이터센터 ③ ACTIS 데이터센터 ④ NH 통합IT센터
4. 독보적인 해양 인프라 공사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 우리 회사는 '인천 제1 도크 복구공사'로 해양 인프라 건설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 프로젝트는 언제 수주했는가?
① 1953년 ② 1957년 ③ 1959년 ④ 1960년
5. 우리 회사가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업계 최초로 빌트인 음성인식 기기를 이용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설비와 자동차 커넥티드 카 기술이 집약된 이 플랫폼은 무엇인가?
① 하이오티 플랫폼 ② 홈투카/카투홈 ③ 보이스홈 시스템 ④ H Sound

2021년 12월 24일 08:00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독자들은 지난 호의 어떤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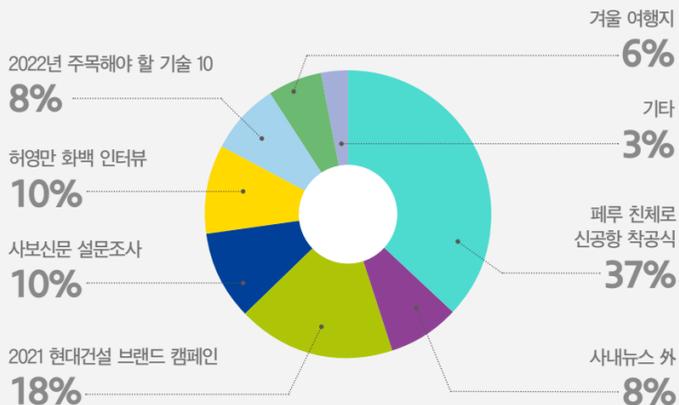
※지난 호
주관식 답
1. 케스퍼
2. 정지운



독자 참여 코너

Stay with HYUNDAI E&C TODAY!

Q 408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독자들은 지난 호의 어떤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을까요?

Q 다음 호에 읽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새해 소망 및 목표 달성 노하우 # 현대건설 2022년 미리 보기

2022년 트렌드 전망 # 겨울철 건강관리법



임직원의 점심시간 활용법

QR코드를 스캔하면 사보신문이 쏩니다!



상단 퀴즈의 정답과 독자 의견을 QR코드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신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① QR코드 접속
② 질문에 응답하고 주관식 답 보내기
③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참여 기간 ~1월 14(금)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 경품 소정의 상품(5명)

'BTS'부터 '오징어 게임'까지 차트로 보는 2021 트렌드 결산

문화칼럼 2021년은 '코로나19 시국' 2년차의 피로감을 'K-콘텐츠'로 승화한 해가 아닐까 싶다. 대중들은 제한적인 사회활동에도 새로운 생활패턴을 만들어냈고, 즐길 거리를 찾아 마음껏 향유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다양성을 넓히고 영향력을 확장해 세계적으로 저력을 과시했다. 글=김보나 / 자료 제공=교보문고, 다이티 데이터 마켓, 스포티파이, 영화진흥위원회, FlixPatrol, 넷플릭스



국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

코로나19 시대에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고 모바일 기기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순위가 우리 생활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척도가 됐다. 올 한 해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은 방역패스 시행으로 필수가 된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다. 다운로드 횟수가 무려 650만 건으로, 2위인 '쿠팡이츠'의 두 배를 뛰어넘는다. 쿠팡이츠는 코로나19로 사용자가 크게 늘어난 배달 앱 중에서도 '한 번에 한 집 배달' 시스템 덕분에 사용자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위와 4위는 주식에 이은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반영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모바일 은행 '케이뱅크'가 차지했다. 국내 암호화폐 이용자는 최소 700만 명(암호화폐 거래소 가입자 수 기준) 이상으로, 암호화폐가 재테크 수단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애플리케이션 'The 건강보험'은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다운로드 횟수 5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SNL코리아'와 EPL 축구 경기, '골드플레이'의 콘서트 스트리밍으로 급부상한 OTT 서비스 '쿠광플레이'가 6위, 중고 거래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한 '당근마켓'이 8위를 차지했다. *기준: 12월 14일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은 넷플릭스 시리즈

요즘은 TV 시청률보다 넷플릭스의 순위가 더 화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한국 콘텐츠들이 호평을 받아 국내에서도 넷플릭스의 인기와 영향력이 함께 높아졌다. 올해 그 선두에 선 작품은 세계적인 신드롬을 낳은 <오징어 게임>이다. 지난 9월 1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스트리밍을 시작한 모든 나라에서 시청 1위를 달성하고 무려 53일간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1위를 기록하는 신기록을 세우며 역대 넷플릭스 시리즈 중 최고 흥행 성적을 거뒀다. 2위는 프랑스 미스터리 드라마 <튀팽>으로, 고전 소설 아르센 뫼방을 모방한 신사적인 도둑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3위를 기록한 <섹스/라이프>와 5위 <브리지튼>은 모두 '29금'로 맨스로 불리며 특히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4위는 스포인 드라마 <종이의 집>이다. <종이의 집>과 <오징어 게임>은 결이 비슷하다. 현실에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특정 공간에서 처절한 사건에 휘말린다는 내용이 닮았다. 한국판 <종이의 집>도 곧 방영 예정이라고 하니 오리지널 버전을 먼저 보고 비교해 봐도 재미있을 것이다. *기준: 12월 15일



세계 최다 음원 스트리밍 아티스트

오랜 시간 영미권 중심이었던 글로벌 음악 시장이 비영어권 아티스트들에게도 점차 길을 내주고 있다. 2021년 최다 음원 스트리밍 횟수를 기록한 아티스트 1위에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배드 버니', 3위에 한국의 'BTS'가 꼽힌 것이 이를 방증한다. 3월에 무려 스페인어 앨범인 'YHLQMDLG'로 빌보드 앨범 차트 2위를 기록한 배드 버니는 남자로는 두 번째로 '플레이보이' 잡지 커버에 등장할 정도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스페인어로 부르는 레게'라는 뜻의 '레게톤'에 힙합, 록, 발라드 요소를 섞어 멜로디에는 흥이 넘치지만 가사에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았다. 배드 버니에 이은 2위는 앨범마다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는 2000년대 최고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테일러 스위프트'다. 3위를 기록한 'BTS'는 세계 최다 스트리밍을 기록한 한국 음원 TOP 10에 6곡이나 올리며 K팝 신한류의 선봉장에 섰다. 4위와 5위는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드레이크'와 '저스틴 비버'가 각각 차지했다. *기준: 12월 1일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은 책

교보문고는 올해 우리나라 도서 시장의 흐름을 가장 잘 나타낸 키워드로 '꿈'을 선정했다. 판타지 장르의 선전, 재테크 관련 도서의 열기, 학습서 및 취미 도서 판매 증가를 볼 때 꿈같은 이야기에 대한 동경과 꿈을 이루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이 베스트셀러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것이다. 1위를 기록한 『달리구트 꿈 백화점』과 3위에 오른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등 우리나라 소설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마이너 장르였던 판타지 소설이 종합 베스트셀러 5위 중 두 권이나 포함된 것이 가장 인상적이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국내 주식시장을 강타한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이 2위를 기록했다. 아무리 가까이하려 해도 멀게만 느껴졌던 철학 분야의 책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가 베스트셀러 5위에 오른 것도 이례적이다. 이 책의 작가 에릭 와이너는 철학 이야기를 위트 있는 여행기로 풀어내 '빌 브라이슨의 유머와 알랭 드 보통의 통찰력이 만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준: 12월 5일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은 영화

류승완 감독의 영화 <모가디슈>가 약 361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021년 국내 영화 흥행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모가디슈>는 스토리와 연출, 액션, 배우들의 연기까지 골고루 호평을 받으며 연말 각종 영화제에서 작품상 등을 휩쓸었다. 2021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힌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은 12월 15일 개봉 후 일주일 만에 3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 모으며 <모가디슈>를 바짝 추격 중이다. 재미와 감동을 모두 담은 스토리로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바치는 헌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3위와 4위 역시 마블의 <이터널스>와 <블랙위도우>가 차지했다. 300만 관객을 기록한 <이터널스>는 마동석이 마블 히어로 중 '길가메시' 역을 맡아 한국 관객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그의 전매특허인 맨손 액션이 그대로 영화에 등장해 'K-귀싸대기'의 위엄을 보여줬다. 현란하고 화끈한 자동차 액션을 9번째 시리즈로 선보인 <분노의 질주-더 얼티메이트>는 <블랙위도우>에 이어 흥행 5위에 올랐다. *기준: 12월 22일



‘지메시’ 지소연 선수 “새해엔 아시안컵 우승에도전”

피플인사이드 한국 축구를 새로 쓴 순간을 회상하는 ‘지메시’ 지소연(첼시 위민)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다. 지소연은 지난 9월,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예선 몽골전에서 A매치 통산 59호 골을 넣었다. 남녀 통틀어 차범근 전 남자대표팀 감독이 보유한 중전 한국 축구 A매치 최다 득점(58골)을 넘어섰다.
글=피주영 <중앙일보> 기자 / 사진=대한축구협회

지소연은 12월 17일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엔 기록 달성 자체가 좋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2006년 처음 국가대표(통산 131경기 출전)가 된 이래로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게 되더라. 수많은 경기와 세월을 버텨내며 자리를 지킨 내가 새삼 대견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한국 여자 축구 레전드

지소연은 한국 여자축구의 레전드다. 올해도 가장 밝게 빛났다. 그는 2020~2021시즌 첼시의 잉글랜드 여자 수퍼리그 2연패와 리그컵 우승을 이끌었다. 유럽축구연맹(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의 주역이기도 하다. 2014년 첼시 유니폼을 입은 그는 우승 트로피만 10개를 들어 올렸다. 지소연은 지난 11월 국제축구연맹(FIFA)가 발표한 ‘올해의 여자 선수’ 후보 13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다. 지소연은 “클럽팀 경력은 그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화려하다고 자부한다. 소속팀에선 웬만한 대회 우승은 다 해봤다”고 자랑했다.

그런 그도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다. 대표팀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지소연은 “대표팀에선 아직 무관이라 아쉽다. 대표팀 동료들과 한 번쯤은 결승 무대를 밟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는 내년 1월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첫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서 5위 안에 들면 2023년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개최하는 여자 월드컵 출전권도 확보한다. 지소연은 “승리욕이 워낙 강해 한 번 목표로 한 것은 반드시 이뤄야 직성이 풀린다. 힘과 스피드에서 나보다 앞선 남자 선수와 축구 경기를 해도 이겨야 성에 찬다. 이번만큼은 대표팀에서 우승하는 꿈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승을 위해 대표팀에서 포지션까지 바꿨다. 뛰어난 스피드와 기술이 공격수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와 닮아 ‘지메시’로 불렸던 그는 중원으로 내려와 플레이메이커를 맡았다. 팀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



2021년 한국 축구에서 가장 밝게 빛난 별인 국가대표 지소연. 지소연의 새해 목표는 대표팀에 있을 때 우승하는 것이다. 내년 1월 아시안컵이 첫 도전이다. 한국 축구의 상징인 호랑이처럼 범의 해에 맹활약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콜린 벨 여자 대표팀 감독의 결정이었다. ‘득점 찬스가 줄어드는 게 아쉬울 것 같다’고 하자, 그는 “공격이 답답한 상황에선 직접 올라가서 골을 넣으면 된다. 공격 본능은 여전해서 찬스에선 양보하지 않겠다. 은퇴 전까지 A매치 70골을 넣고 싶다”며 웃었다.

피아노와 요리로 승부의 세계 잇기도

지소연은 피아노와 요리로 승부의 세계를 잠시 잊는다. 그는 “피아노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다. 악보를 외워서 치는 수준이다. 아직은 동요나 가곡을 치는 정도 실력”이라고 말했다. 요리에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매니저의 남편이 한식 셰프라서 음식을 자주 해주기 때문에 직접 요리할 일이 많지 않다”면서도 “계란말이와 제육볶음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필라테스, 웨이트 트레이닝, 풋살 등 체력과 부상 예방 훈련도 쉬지 않는다. 그는 “20대 때보다는 확실히

경기 후 회복 속도가 더디다. 나를 바라보는 후배들이 있어서 힘들어도 참고 뒀 적도 있다. 경기장 밖이라고 몸 관리를 게을리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일주일에 하루는 같은 리그에서 뛰는 대표팀 동료 이금민(브라이튼 앤 호브 앨비언 위민)과 만나 밥도 먹고 밀린 수다를 떠다. 이금민이 지내는 브라이튼은 지소연이 있는 런던과 자동차로 1시간30분 거리다. 지소연은 “금민이와 같이 대표팀 우승 얘기를 자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존경하는 차범근 선배님의 기록을 넘은 해였다면, 다가올 2022년은 아시아 정상 밟고 세계 무대로 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내년이 범의 해인데, 한국 대표팀 상장이 호랑이 아닌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그에 걸맞은 경기력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소연 선수가 쓴 여자축구의 새 역사

지소연 선수는 잉글랜드 여자축구 최상위 리그인 ‘FA WSL(위민스 수퍼 리그)’ 첼시FC 위민 소속으로, 한국에선 ‘지메시’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이문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한 그는 남자만 있던 축구부에서 유일하게 여자 선수로 뛰었다. 오주중 학교-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한양여대를 졸업한 그는 일본 리그를 거쳐 잉글랜드 리그에서 맹활약하며 한국 여자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지소연 선수는 올해 세계 최고의 여성 축구선수 상 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50년 한국 여자축구 역사의 쾌거다. 영국 <가디언>

지는 그를 “경기를 지배하는 최고의 선수이자 ‘첼시 성공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적인 스포츠 전문 미디어 <ESPN>은 “그는 완벽한 미드필더다. 골과 도움뿐 아니라 경기가 잘 운영되도록 멈추지 않는 엔진처럼 수비에도 가담해 두 배로 기여한다”면서 “첼시 위민이 유럽 톱 팀 중 하나로 떠오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극찬했다. 그는 손흥민 선수와 나란히 국제축구사통계연맹이 꼽은 올해의 최우수 선수 후보와 FIFA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 최종 후보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신라호텔 '위싱 리스'

매년 연말 시즌이 되면 한정판 케이크 2종을 선보이는 서울 신라호텔의 패스트리 부티크가 올해는 하얀 트리를 형상화한 '화이트 홀리데이', 레드 컬러의 마카롱과 초코볼이 조화롭게 올려진 '위싱 리스' 두 종류의 스페셜 케이크를 준비했다. 특히 위싱 리스 케이크를 한입 가득 떠 넣으면, 발로나 초콜릿의 진한 풍미와 폭신한 케이크 시트가 어우러진 기분 좋은 달콤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케이크에 꽂힌 위싱 캔들에 불을 붙이고 소원을 속삭이는 재미는 덩이다.

7만7000원 | shillahotels.com

'연말 홈파티'의 분위기를 UP시켜줄 케이크

반짝이는 조명과 쌀쌀한 공기를 데우는 따뜻한 음식, 그리고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연말'이라는 단어는 공감각적으로 오감을 자극한다. 연말 시즌에 출시되는 케이크도 우리의 눈과 입을 더욱 즐겁게 하는 요소. 올해 파티 테이블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 케이크를 소개한다. 치열한 예약 전쟁에 한발 늦었다면 내년을 기억하며 눈에 담아두기를! 글=권나윤 자유기고가



로맨틱케이크 '곰돌이 케이크'

우리의 시든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귀여운 것! 귀여운 무드가 넘치는 파티엔 로맨틱케이크의 '곰돌이 케이크'가 제격이다. 미니 곰돌이부터 곰돌이 산타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곰돌이 케이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곰 인형을 사랑하는 아이들부터 귀여움에 진심인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함께 즐기기에 좋다.

5만3000원 | instagram.com/romantic_cake_



투스썸플레이스 '화이트 바닐라빈 무스'

커피전문점의 케이크가 강세인 요즘, 투스썸플레이스에서 '윈터 미라클'이라는 테마로 시즌 케이크를 내놓았다.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든 순간이 미라클'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따뜻한 컬러의 케이크들이 눈에 띈다. 그중에서도 '화이트 바닐라빈 무스'는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과 바닐라빈이 달콤하게 어우러진 케이크로,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무드를 연출하고 싶은 이들에게 딱이다.

3만5000원 | twosome.co.kr

도레도레 '메리 크리스마스'

베이커리 브랜드 도레도레의 2021 크리스마스 케이크 라인업도 귀여움 가득이다. '녹지마 눈사람' '반짝 반짝해'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밤에 다녀가신대' '넌 크리스마스에 계획이 다 있구나!' 등 네이밍부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중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위에 쫄로록 자리 잡은 딸기 모자를 쓴 산타 요정이 단연 최고 귀염 포인트다.

M 5만4000원, L 7만6000원 | doremarket.co.kr

베스킨라빈스 '파티 워드 3종 케이크'

함께 파티를 즐기는 가족 중에 어린이가 있다면 베스킨라빈스에서 선보이는 '파티 워드 3종 케이크'를 추천한다. 동글동글한 눈 모양의 스노우볼 아이스크림, 귀여운 캐릭터가 들어간 워터볼 장식, 해피 박스 속 파티용품까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도 안성맞춤.

파티 워드 해피박스 3만1000원, 파티 워드 스노우볼 3만원, 파티 워드 트윙클 트리 2만9000원 | baskinrobbs.co.kr



도레도레 '녹지마 눈사람' '오늘밤에 다녀가신대' '메리 크리스마스'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



아우어쥬빌리 '산타베어 쿠키 하우스'

아우어쥬빌리 '산타베어 쿠키 하우스'

올해 오픈한 디저트 가게인 아우어쥬빌리에서는 컵케이크부터 커스텀 케이크까지 다채로운 콘셉트의 케이크를 만날 수 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역시 다양한 디자인의 케이크를 종합선물세트처럼 준비했다. 특히 '산타베어 쿠키 하우스'는 직접 만든 수제 쿠키에 안에 크림치즈 생크림이 프로스팅된 시트가 들어가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5만6000원 | instagram.com/our_jubilee



안쿠브레 '뷔슈 드 노엘'

통나무를 잘라 놓은 듯한 모양의 '뷔슈 드 노엘'은 프랑스어로 장작이라는 뜻의 '뷔슈'와 성탄절이라는 뜻의 '노엘'이 합쳐진 단어로, 오랜 시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 디저트다. 많은 베이커리에서 볼 수 있지만, 얼마 전 첫 해외 지점을 한국에 낸 프랑스 유명 제과점 '안쿠브레'의 뷔슈 드 노엘이 유난히 눈에 띈다.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정교한 디테일이 강점이지만 그만큼 가격도 만만치 않다. 발 빠른 자들은 이미 선점을 끝내버린 연말 파티 테이블의 핫 아이템.

13만2100원 | instagram.com/yanncouvreur_kr



안쿠브레 '뷔슈 드 노엘'



상상력의 높이로 이동하다

생각의 크기가 미래의 크기이기에
현대건설이 더 큰 상상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아인 두바이 (Ain Dubai)

현대건설이 시공한 257.5m 높이의 세계 최고 회전 대관람차